

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중·미 합작영화

김아중 주연 캐스팅

배우 김아중이 중국과 미국의 합작 영화 '어메이징(Amazing)'에 주연으로 캐스팅돼 지난 15일부터 중국에서 촬영을 시작했다고 소속사 트로피엔터테인먼트가 21일 밝혔다.

상하이영화그룹(Shanghai Film Group)이 제작하는 '어메이징'은 인터넷 농구 게임 개발을 주제로 현실과 가상공간을 오가며 영화로 총 제작비 2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김아중은 게임 개발업체 최고 기술책임자인 강하(황소우명)의 연인인 이린 역을 맡았다. 그가 영화에 출연하는 것은 '미녀는 괴로워'(2006) 이후 4년만이다.

남량특집 '구미호-여우뉴이면' 한 은정 “팜므파탈 여우 역 눈빛이 깊어졌대요 진짜 女優된 느낌”

남량특집 '구미호-여우뉴이면' 한 은정



"이제부터야 말로 많은 분께 연기를 제대로 보여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화기 너머 들려오는 한은정(30)의 목소리에서는 뿌듯함이 은은하게 묻어났다.

최근 종영한 KBS 2TV 남량특집 사극 '구미호-여우뉴이면'의 마지막 촬영을 이날 오후까지 전북 고창에서 진행하고 서울로 올라오는 길이라는 그는 "끝까지 촬영이 재미있어서 피곤한 줄 모르겠다. 이제부터 쉬면 된다"고 밝게 말했다.

그날 찍어 그날 방송하는 우리나라의 '생방송 드라마' 제제에서 '구미호-여우뉴이면' 역시 앤딩 장면을 방송 10시간 전에야 마치는 힘든 스케줄을 소화했다. 하지만 이 드라마를 통해 연기자로서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준 한은정은 기운이 절로 나는 듯했다.

"대본이 마지막 신까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마음에 쏙 들었어요. 정말 슬펐고 재미있었습니다. 또 함께 출연한 분들이 너무 연기를 잘해서 NG도 거의 없이 촬영을 진행했어요. 다음 집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날씨가 너무 더웠음에도 촬영이 늘어지지 않고 빨리빨리 돌아갔습니다."

이 드라마는 구미호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며 화제를 모았다. 남자를 유혹해 간을 파먹는 요물이 아니라, 인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완전한 구미호가 되는 10살까지 인간 세계에 머물며 딸을 보호하는 '어미 구미호'를 조명한 것이다.

한은정은 "엄마 연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엄마가 될 것이라 그런지 부담스럽지는 않았다"며 "캐릭터에 몰입해 100% 진실하게 연기를 하려고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극 중 딸 연이가 진짜 딸처럼 느껴졌다. 이 정도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줄은 몰랐는데, 정말 딸이 너무 예뻤다"고 말했다.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딸을 보호하기

위해, 또 딸을 잃은 후에는 복수를 위해 구미호는 많이 도울었다. 덕분에 한은정은 '눈물의 여왕'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이처럼 구미호를 색다르게 해석한 전략 덕에 이 드라마는 시청자의 관심을 끌었고 MBC '동이', SBS '자이언트'와의 대결에서도 10%대 초중반의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구미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 많이 관심 있게 봐주신 것 같아요. 우리 드라마를 계기로 구미호의 새로운 버전이 많이 등장하지 않을까요?"

색다른 스토리는 연기자들의 호연과 만나 빛났다. 무엇보다 그간 대표작 없이 섹시함으로 어필해온 한은정은 이 작품으로 연기자로서의 가능성과 성장을 보여줬다.

"내본을 보는데 첫눈에 느낌이 딱 맞았어요. 인간으로서 단아하고 청초한 모습과 구미호로서 섹시한 팜므파탈의 모습, 그리고 절절한 엄마의 모성애를 두루 표현할 수 있는 캐릭터라 마음에 무척 들었어요. 이런 느낌은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제 연기도 예전과 달랐던 것 같아요. 또 서서히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나이를 먹고 조금은 성숙해진 때에 이런 캐릭터를 만나 좋은 결과를 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눈이 많이 깊어졌다'는 칭찬을 하시는데 제가 눈을 어찌 한 건 아니고, 캐릭터에 대한 자신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 좀 더 연기가 편안했던 것 같아요. (웃음)"

그는 드라마 종영과 함께 더 다른 곳으로 간다. 아프리카로 봉사활동을 떠나는 것.

"다음 달 초 양골라로 떠나요. 돌아오면 차기작을 물색해야죠. 쉬고 싶지 않아요. 연기적으로 욕심이 많이 나요. 이 작품을 기점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연기를 제대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많은 작품을 하며 쉬지 않고 달리고 싶습니다." /연합뉴스



특집극 '자유인 이희영' 안재모

“대인공포증에 한때 은퇴 생각 연기·사업 둘 다 열심히 할 것”

탤런트 안재모가 슬럼프와 인기 하락으로 은퇴하려 했던 사연을 털어놨다.

최근수원 KBS 드라마센터에서 열린 한일강제병합 100년 특집극 '자유인 이희영' 기자간담회에서 안재모는 "1년 반에서 2년 전쯤은 퇴하고 사업가로 변신하려고 했었다"며 "그렇지만 배우라는 직업을 버리기엔 마음속에 미련이 너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2002년 드라마 '아인시대'에서 젊은 김두한을 연기하며 큰 인기를 끌었으나 이후 소속사와 문제로 3년 넘게 공백기를 겪어야 했다.

"한참 전성기 때 실수 아닌 실수를 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어요. 모두 제가 현명하지 못했던 탓이라 생각해요. 서른을 넘으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배우 생활에 임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면서 때로 자존심이 상하거나 화가 나고 원망스럽기도 해요."

그는 "나중에는 대인 기피증이 생겨서 공식석상은 가급적 피하고 연기만 하면서 지냈다"며 "사업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보니 성격이 변했다"고 말했다.

안재모는 올해 4월 아버지가 하던 사업을 맡게 되면서 사업가로 변신했다. 그는 사업이 자리 잡으면서 본업인 연기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했다.

"결국 연기와 사업 두 가지 다 열심히 하기로 새롭게 마음먹었어요. 주위 분들의 조언이 힘이 됐습니다. 바쁘게 지내다 보니 지난 상처와 아픔은 자연스레 잊혀지더라고요."

그는 1년 반가량 사귄 평범한 여자친구가 많은 도움이 됐다며 고마움을 나타냈다.

"이제야 인연을 만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개로 만났을 때 저를 확실히 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보다 6살 연하지만 나이보다 현명한 친구라 저에게 정신적으로 많은 조언을 해 줘요."

안재모는 '자유인 이희영'에서 우당 이희영 선생의 행적을 주제하는 아사히 신문 종군기자 기무라 준페이를 연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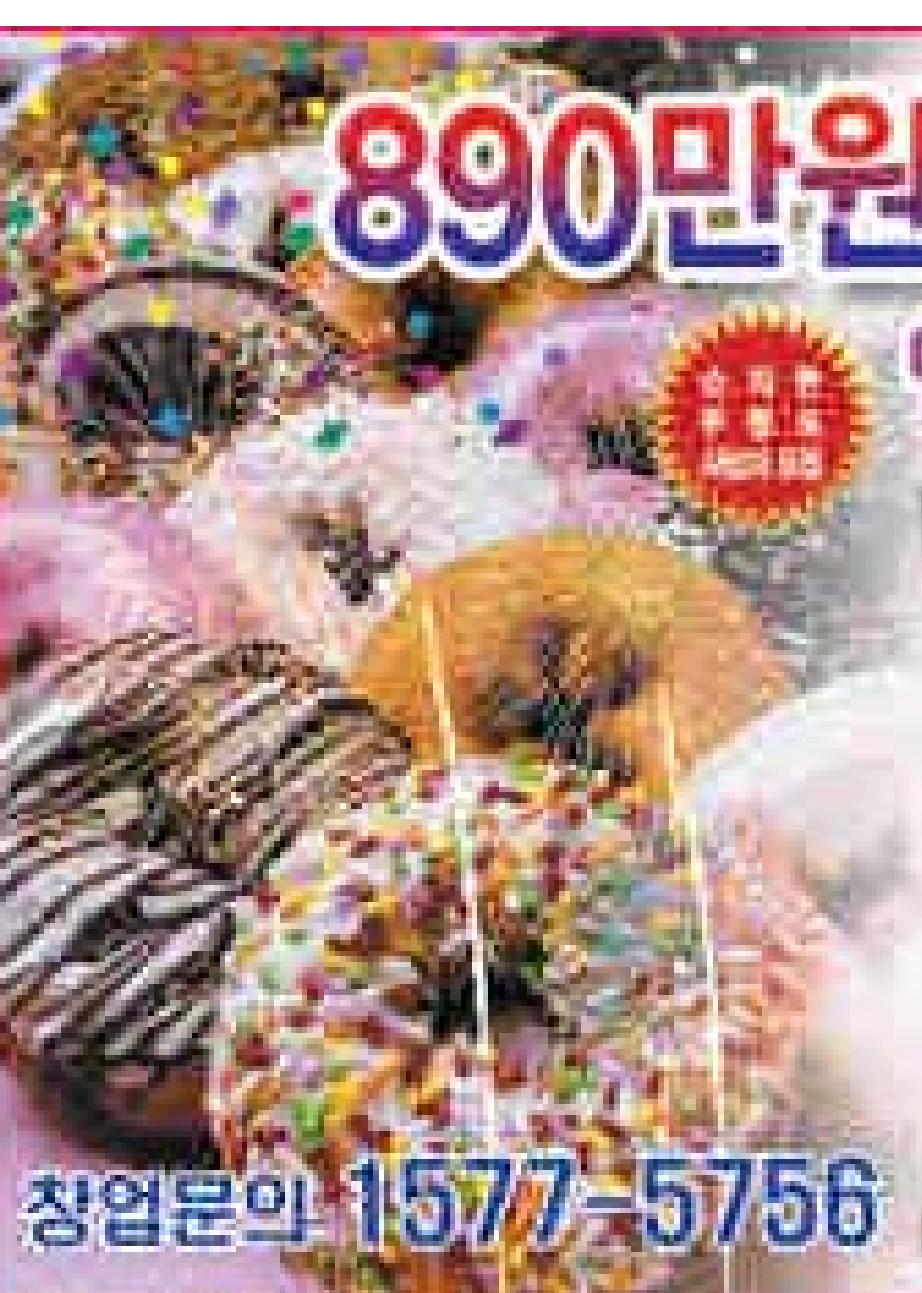
그는 "트랜디 드라마를 하고 싶어도 그간 '옹의 눈물'이나 '왕과 비' 등 사극에서 부각됐던 이미지 때문에 시청자들이 다른 이미지를 쉽게 받아들여주지 않았던 것 같다"고 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배우의 이미지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주변 분들도 사극이나 시대물이 잘 맞다고 해요. 이런 이미지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배우라면 작품에 최선을 다해 인정받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하는 젊은 배우들이 주위 사람들의 총고를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890만원으로 20개 도넛매장 운영! 맛에 반하고 수입에 놀라는 아메리칸 청룡도넛 특판사업



창업문의 1577-5756

창업문의 1577-5756